해제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 혼신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고목용음진견도(古木龍吟眞見道)
촉루식진안초명(髑髏識盡眼初明)
소식진시희식진(消息盡時喜息盡)
당인나변탁중청(當人那辨濁中淸)

마른 나무에 용이 소리를 내니 참으로 도를 봄이요, 해골 뼈다귀에 분별이 다하여야만 진리의 눈이 처음 밝음이라. 소식이 다한 때에 기쁜 소식이 다했거늘 마땅히 사람이 이에 탁한 가운데 맑은 것을 가릴꼬?

금일(今日)은 무술년(戊戌年) 동안거(冬安居) 해제일(解制日)이라. 결제에 임한 이래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어느덧 삼동구순(三冬九旬)이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했음이라.

해제일에 이른 지금까지 방장실을 찾아와서 대장부의 기개(幾個)를 펼치는 이를 보지 못함은 어인 일인가? 그것은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석 달간 얼마만큼 마음에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했는지 각자가 스스로 돌이켜볼지어다.

견성법(見性法)은 일념삼매의 과정이 오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의 분별심이 터럭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 진리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이라. 화두일념이 지속되어 보는 찰라, 듣는 찰라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태산이 무너져야만 진리의 세계와 대면(對面)하는 것이다.

이 일념삼매(一念三昧)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애착과 일체분별과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놓아버리고 가나 앉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사위의(四威儀 : 行·住·坐·臥) 가운데 간절한 화두의심이 지속이 되어서 모든 습기(習氣)와 반연(攀緣)은 재[灰]가 되어야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대중은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가 되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쏟을지어다.

중국의 당나라시대는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성립하여 선(禪)의 황금시대를 구가(謳歌)하던 때였다. 그 중에 운문종(雲門宗)의 문을 연 운문선사(雲門禪師)는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신심과 수행으로 일관하였다.

당시의 선지식인 목주선사를 참례하고는 팔부(八部)의 안목(眼目)이 열렸고, 설봉선사의 회상(會上)에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여 인가(認可)를 받고 법(法)을 잇게 되었다. 그 후 운문선사의 법이 널리 펴져서 선사의 법제자가 20명에 이르니, 운문종파를 이루게 되고 선사의 선법(禪法)이 중국천하를 풍미(風靡)하였다.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 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이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스님의 답이,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용수보살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부촉(咐囑) 받은 부처님 심인법 제15조이시다. 가나제바 존자는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써 당시 인도의 96종의 외도들의 굴복을 받고 귀의시켰다.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제사상에다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다"라고 이르셨다.

요즈음의 선지식들이 당기(當機)에 다다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견처(見處)도, 살림살이도 다 고인(古人)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무변대도(無邊大道)의 불법 진리를 바로 알려면 고인들의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략〉**

그간 무수한 도인들이 각자가 깨달은 경지(境地)를 기량(氣量)대로 써왔다. 제 아무리 약삭빠른 이라도 엿볼 수 없고, 사량·분별을 붙일 수 없게끔 무진삼매(無盡三昧)의 공안을 베풀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공안에 대하여 확연명백하지 못할 것 같으면, 크게 쉬는 땅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고, 고인들과 같은 경지를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니 모든 참학인(參學人)은 고인의 경지에 근간(根幹)을 두어,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베풀어져 있는 공안(公案)의 그물을 다 뚫어 지나가야 한다.

이처럼 당기일구(當機一句)의 기틀을 갖추지 못했다면, 접인(接人)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알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망령된 사견(邪見)에 지나지 않는다. 고인들의 전지(田地)에는 꿈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운문삼전어 (雲門三轉語)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方丈)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답할 자가 있으면 답을 가지고 오너라.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로다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위에 떠있음이로다.

납자 본분 잊지 말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중국 당나라 때 배휴(791~870)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고을군수로 있을 때 대안정사(大安精舍)란 절에 들렀습니다. 마침 이 때 저 유명한 황벽(黃蘗)선사가 정체를 감추고 대중에 섞인 채 전당(殿堂)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객(知客)의 안내로 대중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벽을 쳐다보니 그림 한 점이 벽에 걸려 있어서 물었더니,

지객 왈, "高僧의 초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배휴 왈, "초상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소?"라고 묻자 대중이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배휴가 묻기를 "이 절에는 참선하는 스님이 없소?"라고 물었습니다.

지객이 말하기를 "요즈음 어떤 스님이 왔기에 절의 일을 시켰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배휴가 "그를 청해서 얻은 바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지객이 황벽 희운 선사를 찾아오니 배휴공이 첫 눈에 보고 기뻐하면서 법거량(法擧揚)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스님들은 대답을 아끼셨습니다. 이제 상인(上人)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라고 하니 황벽선사 왈, "상공(上公)의 마음대로 물으시오" 하니, 배휴가 앞의 말을 되풀이해서 물으니, 대사(大師)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배휴여!" 공이 "네" 하고 대답하니, 대사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공이 당장 종지(宗旨)를 깨달은 것이 마치 상투속의 구슬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참된 선지식(善知識)이십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시거늘 어째서 이런 곳에 눌러계십니까?" 이때 절의 대중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선문에서는 이처럼 스승과 제자는 종지(宗旨)로 계합하여 맺은 법연(法緣)이지, 한 갓 이름으로 맺어진 사제(師弟)가 아닙니다. 해제라고 해서 마음을 풀어 놓지 말고 몸은 비록 팔방(八方)에 있더라도 납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도록 바랍니다. **〈후략〉**

산에 오르며 산 찾는가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時會大衆元丈夫(시회대중원장부)어늘 如何曠劫沈愛河(여하광겁침애하)오.

一朝消盡無明業(일조소진무명업)하면 金烏夜半徹天飛(금오야반철천비)하리라.

시회대중은 원래 대장부거늘 어떻게 광겁에 애착의 강물에 침몰하는고? 하루아침에 무명업만 소멸하면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하늘에 사무쳐 날으리라.

古人(고인)이 云(운) 身在井邊休覓水(신재정변휴멱수) 하고 日行嶺上莫尋山(일행영상막심산) 하라고 했으니 大衆(대중)은 善省察(선성찰) 하라.

夜夜抱佛眠(야야포불면) 하고 朝朝還共起(조조환공기)어늘 如何不了(여하불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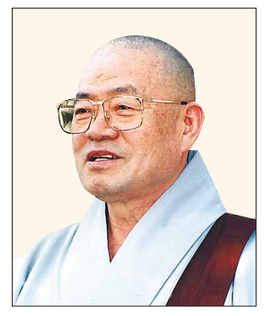
良久(양구)에 一喝云(일할운) 疑團獨露(의단독로)하야 消盡妄想(소진망상)하야사 始得(시득)다.

求生必死(구생필사)하고 決死返生(결사반생)하니 決死精進(결사정진)하야 一刀兩斷(일도양단)하고 超佛越祖(초불월조)하면 眞是出格丈夫(진시출격장부)니라.

고인이 이르시되 몸이 우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산위에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말라 했으니 대중은 잘 살펴보라.

밤마다 부처를 안고 누워 자고, 아침마다 부처를 안고 일어나거늘 왜 깨닫지 못하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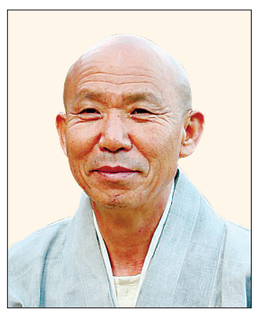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 하고 이르시되 의심뭉치가 홀로 드러나서 망상이 소멸하야사 비로소 옳다. 살기를 구하면 반드시 죽고 죽기를 결심하면 도리어 살아나니 죽기를 결심하여 정진해서 한칼로 두 끝을 내고,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으면 참으로 이 격에 뛰어난 장부니라. **〈중략〉**



게송으로 이르시되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님이니 긴하게 고삐를 잡아 한바탕 공부를 지어라.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아니하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겠는가?

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금조상원절(今朝上元節)이니 설소견청춘(雪霄見晴春)이라. 장공월일륜(長空月一輪)하니 기찰등천점(幾刹燈千點)인져.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니 눈발이 멈추면 해맑은 봄을 만나리라. 하늘에는 보름달이니 선당(禪堂)에는 얼마나 많은 법등이 켜질고.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동시에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름달과 선문(禪門)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고금이래로 달을 보며 수많은 선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가(禪家)뿐만 아니라 세속가(世俗家)에서도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지월(指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며,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월인천강(月印千江)도 사부대중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영가현각(永嘉玄覺)선사는 증도가(證道歌)에서 '월인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월(一月)은 보현일체수(普現一切水)요 일체수월(一切水月)을 일월섭(一月攝)이라."

하나의 달은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지만 그 모든 달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포섭합니다. 그런 까닭에 천개의 그릇을 나란히 놓았을 때 각 그릇에 비친 천 개의 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맑은 강물에는 한 개의 온전한 달이 홀로 비칩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맑은 물과 탁한 물, 달거나 쓰고 떫거나 짜거나 싱거운 맛 등의 갖가지 물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의 달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강 늪 바다 시냇물 연못 등에 모두 비치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에 비친 달을 하나의 달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갖가지 물에 나타난 제2월(第二月)은 알고 보면 오로지 제1월(第一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선당(禪堂)에도 눈 푸른 대중의 숫자만큼 법등(法燈)이 함께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해제라고 하는데 진정한 해제는 공안을 타파해서 생사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해제라 할 것입니다. 이제 해제를 맞아 산문을 벗어나더라도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숨을 쉬다가 숨을 쉬지 못하면 내생(來生)입니다. 내생(來生)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하고, 삼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년 동안의 보배가 되고, 백 년 동안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가 훤출하고 확연해야 됩니다. **〈후략〉**

활발발은 사회에 던진 시대정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결제대중들이 겨울 내내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겨울한기를 이겨내며 공부에 매진했을 텐데 스스로 마음에 흡족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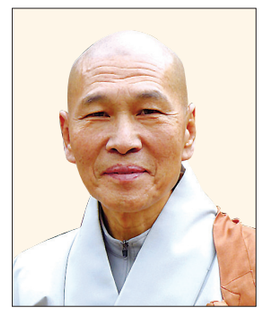
저는 얼마 전 서옹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활발발지(活鱍鱍地)를 새겨보았습니다. 대혜보각선사 서장 가운데 삼돌장(三咄狀)을 읽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혜 스님께서 묵조선을 비판하시고 간화선을 제창하신 뜻도 떠올렸습니다.

대혜 스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그야말로 천하대란의 지경이었습니다. 금나라에게 수도인 변량을 함락당해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은 잡혀갔고 양자강 이남으로 피란을 하여 겨우 조정을 꾸려 버티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국초부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풍조가 있었는데 오대십국의 혼란을 겪은 후 가급적이면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송태조 조광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라와 사회에 가득했었고 점점 무사안일이 사회전반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것은 탈속(脫俗)으로 오도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최고로 칠뿐 진취적인 기상은 죄악시 되었습니다.

본디 묵조선(默照禪)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방법이었으니 삿된 선(死禪)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혜종고 스님께서 이런 비판을 왜 하셨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회뿐 아니라 절집 안에서도 마음 쓰는 것 없이 종신토록 멍청히 앉아 있던 그런 구태들을 쳐버리신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한마디로 대혜 스님께서 말씀하신 활발발(活鱍鱍)은 당시 불교계와 나라와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와 절집을 대혜 스님께서 보셨더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신과 수행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들도 대혜 스님께서 일갈하셨던 삿된 선(死禪)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우리 정진대중들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공에 체하고 고요함에 파묻혀(沈空滯寂) 큰 잉어가 꼬리를 쳐서 물살을 헤쳐 나가는 그런 기상을 잃은 것은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후략〉**

연화장세계 만들어내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毛呑巨海(모탄거해)요 芥納須彌(개납수미)로다.

碧漢一輪滿(벽한일륜만)하니 淸光六合輝(청광육합휘)로다.

踏得故鄕田地穩(답득고향전지온)하니 更無南北與東西(경무남북여동서)로다.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네. 푸른 하늘에 달이 밝으니 맑은 빛이 육합에 빛나네. 고향 땅 밟아 안온하니 다시 남북동서가 없네.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동결제를 성만한 인연은 옛 가르침에 대한 안거대중의 환희와 신심 있는 단월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거법도가 원만하게 실천된 일은 크게 희유하다 할 수 있으며 안거를 통해 삼계대도사의 안목을 구족하게 된 인연도 또한 크게 희유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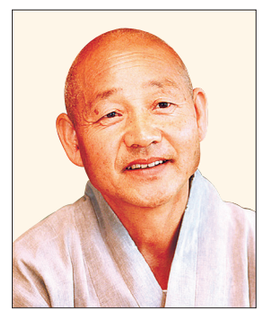
삼동결제를 성만한 인연을 통해 안거대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걸음으로 산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정으로 체득한 지혜안목으로 이제 수행자는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사신(捨身)보시를 통해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되 삼취정계의 보살계법과 최상승의 무생계를 실천하고, 능히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되 고통을 참는 일이 아닌 지혜와 능력을 증장하는 한량없이 즐거운 일로 기쁨과 환희 속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남의 인연이 참정진 아님이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방편은 원만하고 원력과 지혜도 수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문을 나서는 해제대중이여!

발길 머무는 곳마다 연화장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정진하는 일을 쉼 없이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발심하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연화장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得之在心(득지재심)이요 應之在手(응지재수)라.



雪月風花(설월풍화)요 天長地久(천장지구)라.

朝朝鷄向五更啼(조조계향오경제)하고 春來處處山花秀(춘래처처산화수)로다.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네. 눈 위의 달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여.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네.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아름답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